

# 송아지의 건강은 어떻게 진단하나?



번우기축생명과학연구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경순

송아지를 건강하게 잘 기르려면 축주는 요령있게 송아지를 관찰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송아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건강 유무를 파악한다.



건강한 어미와 송아지의 모습

## □ 귀

귀는 송아지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준다. 건강한 송아지는 귀를 기민하게 잘 움직인다. 건강하지 못한 송아지는 한쪽 혹은 양쪽 귀를 늘어뜨리고 있으며 외부자극에 반응이 둔감하다.

## □ 눈

송아지의 건강상태는 먼저 눈동자에 의하여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건강한 송아지는 눈동자가 맑고 광채가 있으며 눈동자를 좌우로 활발히 움직이고 눈을

자주 깜박이며 눈곱과 눈물이 없이 상쾌하게 보인다.

#### □ 코

건강한 송아지는 비경에 적당한 습기가 있으며 코 구멍에서 콧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상이 있는 송아지는 비경이 건조하거나 코 구멍에서 콧물이 많이 흐른다. 송아지가 열이 있는 경우 비경이 건조할 수 있으며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있을 때는 콧물이 나온다.



#### □ 식욕

식욕은 건강상태의 확실한 지침이다.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진다. 평소 사료를 잘 먹던 송아지가 사료를 덜 먹기 시작하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료를 주었을 때 바로 사료조에 다가가 왕성한 식욕으로 사료를 먹는 송아지는 건강하다. 사료를 제한급여시 열심히 잘 먹는지 남기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마리를 같이 먹일 때는 먹는 상태를 개체별로 관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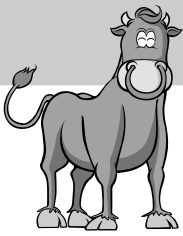
송아지의 포유장면

#### □ 젖을 빨 때의 행동

생후 1개월까지는 송아지가 젖을 빠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젖을 빨 때는 대부분의 송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젖을 먹는다. 꼬리를 흔드는 것은 송아지가 즐겁게 젖을 먹고 있다는 표시이다. 송아지가 젖을 빠는 시간은 대략 10분 내외이다. 젖을 빨기 시작하여 몇 분간 빠는지를 조사하면 송아지가 젖을 잘 빨아먹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사하는 송아지



□ **똥**

송아지의 병은 거의 설사이다. 따라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항상 송아지 방이나 운동장에 배설된 똥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송아지의 똥은 냄새가 없으나 설사 똥은 악취가 있고 점액이나 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송아지의 엉덩이나 꼬리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만일 지저분하면 그 송아지는 설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두사육하는 경우는 어느 송아지가 설사를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송아지의 똥이 황백색 또는 백색일 때는 주의를 기울여 바로 치료해야 한다.



별도의 송아지 방

□ **체온**

송아지의 체온은 38.5℃ ~ 39.5℃이다. 전염병, 폐렴, 위장병 등이 있을 때는 40℃ 이상으로 열이 올라갈 때가 많다. 체온이 39.5℃ 이상 올라가 있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온은 아침에 낮고 저녁에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아침, 저녁으로 2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체온을 측정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수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 **머리의 위치**

서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 머리의 위치도 송아지의 건강상태를 나타낸다. 건강한 송아지는 머리를 올리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보통이다. 머리를 숙이고 등을 둥그랗게 하고 있는 송아지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표시이다. 또한 머리를 내던지거나 등에 실은 것처럼 자고 있는 송아지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표시이다.

